

BASF, 세계최초 TPP Pellet 출시

Flake 타입에 비해 저장용이 · 약취감소 ... 단일 · 연속 생산 플랜트

BASF가 세계 최초로 Pellet 형태의 TPP(Triphenylphosphine)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.

BASF에 따르면, 기존의 TPP는 얇은 조각(Flake)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얽혀 찢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용기에 제한이 있으나 BASF의 새로운 TPP Pellet은 둥근 공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흐르고 공간 활용이 용이해 Bulk Bag으로 알려진 FIBCs(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)에도 쉽게 담을 수 있다. 또한 TPP Pellet은 일반 TPP Flake에 비해 약취도 덜 하다.

BASF는 세계 TPP 수요증가에 힘입어 TPP 생산능력을 100% 확대했다. BASF의 새로운 TPP 플랜트는 독일 Ludwigshafen에 소재하고 있으며 TPP 플랜트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한다.

Ludwigshafen 소재 TPP Pellet 플랜트는 2004년 1월 가동에 들어갔으며, 세계에서 유일한 연속 생산방식의 단일 TPP 생산라인으로 교차오염(Cross-Contamination)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BASF는 주로 고체형태의 TPP를 생산하고 있으나 용융형태의 TPP도 판매하고 있는데, 용융형 TPP는 고체형에 비해 적당량 나눠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다.

한편, TPP는 비타민 합성, 의약품 활성요소, 농작물 보호제품 및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Isobutanol 및 n-Butanol을 생산하는데 촉매로 사용되기도 한다. <김수진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2/12>